

철학사

51 임마누엘 칸트 소개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오늘부터 2주간 임마누엘 칸트 탐구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칸트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순수이성비판』을 다룰 예정인데, 아마 나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천이성비판』의 윤리 부분을 하루씩, 그리고 칸트의 종교관을 하루씩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칸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철학적 기획을 이전 철학자들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길고, 가장 난해한 작품인 『순수이성비판』은 1781년에 출간되었는데, 데이비드 흄처럼 그 역시 같은 주제에 대해 좀 더 대중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후쯤 『미래 형이상학을 위한 서론』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제목부터 제대로 파악해 봅시다. 우선 , 『서론』 말입니다.

자,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에 관한 책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그중 한 영국인은 코끼리에 대한 입문서를 단권짜리 양장본으로 썼는데, 아주 품위 있는 책이었죠.

미국인은 《코끼리 다이제스트》를, 프랑스인은 코끼리의 연애사를 그린 그림책을, 그리고 독일인은 3권으로 된 《코끼리 연구 서론》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서론》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 이라는 주제를 이해해 보세요 .

사실상 데이비드 흄은 모든 형이상학적 지식, 즉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지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현상과 외관뿐이며, 그 이상은 기껏해야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칸트가 자신의 저서를 '미래 형이상학을 위한 서론'으로 정의한 것은 흄의 형이상학적 회의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칸트의 관점에서 형이상학의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칸트는 『미래 형이상학 서론』 서문에서 그러한 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에세이, 특히 로크의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와 라이프니츠의 새로운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를 기억하시죠? 그들의

에세이 이후,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이상학의 기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데이비드 흄의 공격만큼 형이상학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지식 분야에 새로운 빛을 비추지는 못했지만, 마치 불이 불지 않는 물질에 옮겨붙어 그 작은 불씨가 잘 보살펴지고 발전되었다라면 빛이 타올랐을지도 모르는 불씨를 냈습니다 .

흄은 형이상학에서 단 하나이지만 중요한 개념, 즉 인과관계의 연관성, 그리고 그 파생 개념인 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냈다고 자처하는 이성에게,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즉 어떤 사물이 명제된다면 다른 어떤 사물이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물을 명제해야만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흄이 한 일을 요약한 훌륭한 설명입니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흄의 추론이 아무리 성급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탐구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흄은 형이상학자들이 흔히 겪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이상학을 공부하려는 생각이려면,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토머스 리드, 오스왈드, BD,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스코틀랜드 현실주의자들을 비롯한 그의 반대자들이 얼마나 완전히 요점을 놓쳤는지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흄이 의심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열정적으로, 때로는 뻔뻔스럽게 증명하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의 귀중한 제안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옳은지, 유용한지, 또는 필수적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경험과 독립적으로 이성에게 의해 선형적으로 사고될 수 있는지, 즉 경험과 무관한 내적 진리를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흄의 문제였다. 개념의 필요성이 아니라 개념의 기원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상식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때 신탁처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흄의 반론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물었고, 곧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이해력이 사물을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 전체가 선형적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개념들의 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12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이러한 개념들을 추론해 나갔다. 흄이 시도했던 것처럼 나도 이러한 개념들을 추론해 보았지만, 그것들이 순수 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사실상 흄에게 반박하면서 회의주의가 발전하게 된 인과관계 개념을 비롯한 다른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결국 경험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선형적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간다. 형이상학은 본질적으로 종합적 선형적 명제와 관련이 있다. 선형적 명제 .

그리고 그는 이런 수사적 기교로 서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칸트조차도 수사적 기교를 부릴 줄 아는군요. 그러므로 모든 형이상학자들은 '어떻게 종합적 선형 명제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적절하게 답할 때 까지 엄숙하고 합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답이야말로 순수 이성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제시할 때 그들이 보여줘야 할 유일한 자격 증명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동안 속아온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그들을 해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든 형이상학자들을 해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의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

그는 흄의 회의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이상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심각한 의문시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형이상학이 존재하려면, 그러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선형적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그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의 용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순수이성비판 서문에서 이러한 용어를 발전시켜 왔는데, 그 내용은 선집 367쪽부터 377쪽까지에 있습니다. 서문이 단순히 용어 설명에 불과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가 도입한 용어들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죠. 그는 서두에서 세 가지 철학, 즉 독단 철학, 회의 철학, 비판 철학을 구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가 누구 또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흄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인 철학은 초기 형이상학자들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독단적인 형이상학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그는 분명히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대륙 합리주의를 나타낸 우리 도표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모두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형이상학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모든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공리적인 제1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독단적 형이상학입니다. 반면에, 로크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른 시기에 경험적 토대 위에서이긴 하지만 형이상학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버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형이상학적 결론 또한 독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흄 같은 회의주의자들과 독단주의 철학자들이 있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1700년대에 활동했지만, 칸트 이전 18세기에도 다른 많은 형이상학 철학자들이 활동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 합리주의에는 라이프니츠의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이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즉, 그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혁명에서 비롯된 합리주의 전통 속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독단적인 잠이란, 그러한 체계의 비판 없는 형이상학적 주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흄의 저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연구에 착수할 때, 그의 연구는 비판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검토하고, 형이상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의 주요 저서는, 보시다시피, 비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 순수 이성이란 경험적 입력이 전혀 없는 선험적 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순수 이성이 지닌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려 하고 있다.

경험과 무관한 이성. 형이상학의 가능성.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

형이상학적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지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1781년에 첫 번째 비판을 제기한 데 이어, 조금 후에 두 번째 비판, 즉 실천 이성 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용어인 실천 이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윤리적 사고를 지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도덕적 지식에 대한 비판임이 드러납니다. 형이상학 전통에서는 도덕적 지식 역시 형이상학적 지식 처럼 제1 진리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존 로크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수학적 지식을 얻는 방식과 동일하게 도덕적 지식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역적으로. 직관적인 기본 원리 같은 것에서.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서.

도덕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데이비드 흄은 그의 저서 『탐구』 1장에서 추상철학과 실천철학을 구분했죠. 추상철학은 형이상학에 관한 것이고, 실천철학은 도덕철학입니다.

그리고 '도덕철학'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윤리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론을 비롯하여 인간의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천이성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 지식의 인식론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세 번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적 판단, 즉 미적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데 ,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대해 온갖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18세기 과학자들은 자연의 질서를 강조 했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질서 정연함 . 자연의 아름다움. 즉, 자연에 대한 미적 판단.

그리고 예술 작품 에 관해서 말하자면 , 데이비드 흄과 몇몇 도덕 감각 철학자들은 미적 지식을 도덕적 지식에 비유했습니다. 이해 되시죠 ?

그래서 그는 도덕적 지식을 다룬 후, 이제 또 다른 개념인 미적 지식으로 넘어옵니다.

생깁니다 .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그가 보고 있는 것, 보려고 하는 것, 혹은 보려고 애쓰는 것은 지식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 입니다 . 도덕적 지식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죠.

미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이성비판은 객관성과 논리적 확실성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이상학적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형이상학 문제에 있어서 교조적인 확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형이상학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 적용된다. 독일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형이상학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크리스티안 볼프. 그들 중 한 명은 그것을 철학적 심리학과 철학적 우주론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철학적 신학. 당연히 정신, 자연, 그리고 신을 다루죠.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남지 않습니다.

상당히 포괄적 이죠 . 따라서 자연 신학, 즉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신학에 대한 그의 결론은 부정적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들이 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더 나아가 형이상학적 믿음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요소들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것 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적절하게 형이상학적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칸트는 형이상학적 지식과 논리적 확실성의 가능성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세 가지 비판 모두에서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특정 형이상학적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의 바람 덕분에 처음 두 권의 책보다 더 읽기 쉽고 간결한 버전이 나왔다는 점을 덧붙여 야겠습니다 .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책의 간결한 버전인데, 이는 앞으로 나올 모든 형이상학 저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성 비판의 간략한 버전은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읽게 되는 칸트의 윤리학 정언명령 부분은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는 또한 '이성만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종교 관련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계시와는 별개로 종교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것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진행될 겁니다. 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 그가 비판 철학이라고 말하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비판 철학이 그의 프로젝트라면, 그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잖아요 .

누구를 만났냐고요? 네. 당신은 그의 형이상학적 신념이 도덕적 지식과 미적 지식에 기반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로 그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도덕적 지식도 중요한가요? 네, 도덕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그리고 그 내용이 선집에도 조금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비판에 대한 그의 결론은 사실상 우리가 가진 지식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심리학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흄 과 스코틀랜드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인간 마음의 성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마음의 성향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 형이상학적 믿음에 기여합니다.

문제는 흄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때때로 처음 네 부분만 읽고 흄을 회의론자로 단정지는 다음 뒷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칸트의 경우에도 그의 부정적인 결론만 읽고 뒷부분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흄의 결론이 믿음에 관한 것이듯이, 칸트의 결론 또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플라톤은 그의 첫 번째 비판서 서문에서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을 없애야 한다니요. 플라톤의 이분법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지식과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을 단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믿음의 하위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의 결과로 얻는 직접적인 자각이나, 자명하고 자명한 것에 대한 직관, 또는 그러한 근본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증명적 지식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명확한 구분이 사후 세계까지 이어지고 계승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역사가 이로써 지식과 믿음 사이의 플라톤적 구분을 종식시켰고,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요. 흄 이후로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약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라톤 전통에서처럼 완전히 별개의 의미로 그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요. 1960년대에 인식론에서 지식이란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하위 개념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정당화 조건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지식의 개념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다음은 뭐죠? 선형적 추론과 후험적 추론. 후험적 추론이요. 네, 369쪽에서 373쪽쯤에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선형적(a priori)과 후험적(a posteriori)이라는 용어에 이미 익숙합니다. 이는 칸트 이전 시대의 철학자들보다는 이 용어들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흄은 관념의 관계와 사실의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경험주의 전통에서 흄의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념들의 관계는 단순히 분석적이다. 그것들은 A는 A와 같다, A는 A가 아니다, 독신남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같은 단순한 논리적 진리의 형태를 지닌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야. 논리적 동일성은 어디서 나온 거야? 좋아, 논리적 진리 말이야. 관념들의 관계 말이야.

개념들을 이해하면 그러한 관계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을 개념 들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공리를 전제로, 공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은 서로 연관된 기본 개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사실 관계는 좀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즉,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참이 되는 것들입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어가 주어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 명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신남은 불행하다는 명제가 그렇죠.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적 진실, 즉 때로는 사실적 진실 또는 물질적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에는 모든 과학 분야가 포함될 것입니다. 물리 과학, 생명 과학, 그리고 심리학은 모두 정신 과학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학 분야가 그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형이상학은 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흄은 형이상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흄 이전에는, 네, 이런 식으로 여겨졌겠죠. 이제 여기서 정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적 추론에 따르면, 술어는 논리적으로 주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는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참입니다

.

이해하셨나요? 술어, 즉 주어에 대해 서술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주어의 일부입니다. 3 더하기 5는 8입니다. 독신자는 미혼 남성입니다.

종합 명제에서 술어는 주어 에 포함되지 않고 주어에 덧붙여진다. 그러나 칸트가 하는 독특한 점은 이러한 구분에 선형적(a priori)과 경험적(a pos

teriori)이라는 구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경험적이라는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데, 단순히 경험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경험에 의존한다. 경험 이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칸트는 경험에 근거한 확실한 종합 명제들이 존재한다고 재빨리 주장했다.

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단순히 경험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경험에서 우리나라오는 종합적인 추론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분석적 선형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선형적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경험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념의 분석적 관계는 경험과 무관합니다.

2와 1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손가락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 그 두 가지 점에서는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기에 '합성적'이라는 개념을 덧붙일 때 발생합니다. 선형적이라는 개념은 마치 사과와 배를 섞거나, 복숭아와 바나나를 섞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적 선형적. 이제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가 말하는 '선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봅시다. 대부분의 입문 과정에서는 '선형적'이란 경험과 무관하다는 설명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선형적 지식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적 진리는 보편적으로 참이 될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실이죠. 거짓일 리가 없어요. 네.

분석적 지식만 필연적으로 참인 것이 아니라, 선형적 지식도 필연적으로 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형적 지식에는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분석적 선형적 명제, 예를 들어 동어반복 같은 것들이 있고, 종합적 선형적 명제,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형이상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끌어들이는 수학이요. 네. 칸트에게 있어서 종합적 선험성은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즉 형이상학을 포함하니까요.

단순히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 수학, 물리학, 형이상학. 네.

그리고 순수이성비판을 보면 알겠지만, 그는 이 문제들을 세 가지 주요 부분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그가 '초월적 미학'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수학적 지식의 기초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 미적 감각? 잠깐만 기다려 봐.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 응.

독일어로 '미학'은 감각 지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의식적인 자각과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초월적 미학이죠. 그 다음엔 초월적 분석학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물리학 지식과 물리학 원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월적 변증법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형이상학을 살펴보죠. 그리고 그 초월적 변증법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리적 또는 철학적 심리학, 합리적 또는 철학적 우주론, 합리적 또는 철학적 신학을 다룬다.

편집자가 제공해준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아주 유용하게 나와 있어요. 보이 시나요? 한번 보세요.

366쪽에서 그는 첫 번째 부분인 초월적 미학을, 두 번째 부분인 초월적 논리를, 그리고 제1부인 초월적 해석학을 다룬다.

제2부, 초월적 변증법. 그의 요점은 우리가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 말이죠.

혹은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용어의 의미를 더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지식, 즉 선험적으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의 연구 목표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형이상학은 선험적 토대 위에 가능한 것일까요?

형이상학은 종합적 지식, 즉 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할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그가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는 개념적 장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369페이지를 보세요. 369 .

두 번째 열 맨 위를 보세요. 선집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칸트 강의를 듣는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선집이 필요할 겁니다.

369쪽, 맨 위 두 번째 열에 나와 있습니다. 제 질문은, 모든 자료와 경험의 도움이 사라졌을 때 이성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경험과 무관하게 ,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선형적 지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의 중간쯤에서, 그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저자에게 두 가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확실성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그 문단의 중간쯤에서 그는 선형적으로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말합니다 .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순수 지식, 즉 선형적 지식은 모든 철학적 확실성의 척도입니다. 확실하다고요? 네, 증명 가능하고 입증 가능하며 논리적으로 필연적입니다 .

그리고 371쪽, 두 번째 열 맨 아래에는 내적 필연성의 성격을 지닌 일반적 진리는 경험과 무관하고, 명확하며, 그 자체로 확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선형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것들을 일반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보시다시피, 그것들은 논리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두 다요. 일부만도 아니고, 특정 지역만도 아닌, 전부 다요.

너무나 보편적 이고 필연적이어서 선형적 기준이 개입됩니다 . 그리고 372 쪽 상단, 첫 단락의 중간쯤, 그러니까 여섯 줄쯤 되는 부분에서,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경험에서 제거한다 하더라도, 감각에서 파생된 특정한 원초적 개념과 판단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모든 경험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선형적인 기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꽤 분명합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맨 위 첫 번째 열에 수학적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성 선형적(synthetic a priori

)’이라는 표현은 37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합성 선형적, 374페이지 두 번째 열, 맨 위.

선형적 종합 판단에는 경험적 도움이 부족합니다 . 만약 제가 개념 A를 넘어서 또 다른 개념 B를 찾고자 한다면, 제가 의지할 수 있고 A와 B를 종합 할 수 있게 해 줄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험의 영역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흄의 핵심 명제인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명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개념에서, 저는 시간보다 앞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의심 없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가지 분석적 판단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원인이라는 개념은 그 범주 밖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보다 앞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접속사요. 규칙성. 끊임없는 접속사요.

네, 그는 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점은 있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며,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초월적 방법. 그리고 그 맥락에서 '초월적'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375쪽에서 “나는 지식을 초월적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 선형적 개념에 몰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꽤 괜찮은 정의죠. 초월적인 것과 초월적 존재를 혼동하지 마세요. 신학자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면, 초월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딘가에 신이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이 세상을 초월하여 마치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신. 초월적. '초월적'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신학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미국 문학가처럼 생각한다면, 초월주의라는 용어에 익숙할 겁니다. 여기서 초월주의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아래에 있고, 여기 주변에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미국 초월주의는 인간 정신이 창조적이고 표현적인 힘이지만, 그 힘이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작용하는 , 모든 것 속에 스며든 창조적인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
일종의 범신론적 관점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혼, 마음, 정신이 이
세상의 정신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에게서 그런 점을 볼 수 있죠. 초월주의 말이에요. 초월주의는 19
세기 독일 낭만주의의 미국판으로, 범신론적 또는 범재신론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칸트가 없었다면 초월주의나 낭만주의도 없었을 겁니다.
칸트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철학적 전환점입니다. 그는 그들보다 먼저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흠뻑어. 아니, 빌렸지 . 틈만 땀어.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월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칸트가
말하는 그 사상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
정신의 내적 자원, 즉 인간 마음의 내적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지식 탐구에 선형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월적 방법은 인간 정신이 지닌 이러한 내면의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초월'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월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판 하려는 시도라고 한다면 , 당연히 초월적 방법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의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 말이죠. 모든 인간이 지식
탐구에 임할 때 공통적으로 갖는 보편적인 전제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제는 칸트가 생각하는 개념 그 이상의 어떤 이론, 어떤 명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개념이란 존재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칸트가 플라톤 이후 우리가 선천적
이데아 라고 생각해 온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 관념이란 이미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관념을
말합니다.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천적 관념은 자명한 것으로,
마음속에 명확 하고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같은 것이죠 .

하지만 칸트가 추구하는 선험적 개념은 완전한 개념이 아닙니다. 명확한 관념도 아니고, 자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또는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 다가오는 것들을 걸러내는 데 사용할 격자 같은 것입니다.

혹은 경험을 부어 넣을 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늘 예로 드는 건, 칸막이가 있는 얼음 트레이입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잠시 지나면 예쁘고 정육면체 모양의 얼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건 좀 다루기 힘들죠. 손으로 물을 쥐고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이 우즈는 좀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플라톤이요. 네, 플라톤과 관련된 건데, 플라톤이라는 글자를 짜내서 온갖 예쁜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물 모양이요.

음, 마치 쿠키 주사기로 크리스마스 쿠키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노즐을 통해 재료를 짜내면 별 모양 쿠키나 다른 여러 가지 예쁜 모양의 쿠키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건 선험적 구조, 즉 구조화예요.

프레임워크요. 네. 비유를 바꿔보죠.

선천적 인 렌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렌즈죠.

아침에 면도할 때는 안경에 김이 서려서 벗어요. 하지만 구레나룻 바로 아래 부분을 면도할 때는 잘 안 보여서 다시 안경을 써야 해요. 나머지 부분은 감으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박쥐만큼 눈이 멀었다는 건 완전히 눈이 먼 것과 마찬가지로요. 안경 없이는, 아시다시피, 저는 즐겁게 지내야 해요. 렌즈 없이는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모두 똑같은 렌즈를 끼고 살잖아. 안경점에 가서 안경 하나 사 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구축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가 초월적 방법을 통해 밝혀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선험적 구조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념과 사실의 관계를 논할 때 형식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를 구분합니다. 형식적 진리는 단지 논리적 형식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선험이란 사물에 이성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형식적 원리일 뿐입니다. 사물에 대해 알려주는 사실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선험적 개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확정짓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방식을 특정 방식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식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인과관계도 그러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앞서 말했듯이, 다른 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네, 칸트는 이것이 새로운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인물인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 인물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를 상상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있는 곳, 즉 우주의 중심에서 관측을 했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우주의 주변부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찾았어요. 완전히 소외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됐죠.

이해되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즉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즉 철저한 객관성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인식과 지식에 대한 객관성 말입니다.

존 듀이가 말했듯이, 지식 습득은 관람 스포츠와 같습니다. 당신은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수용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혁명, 새로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주관성을 도입합니다.

인간 주체가 기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주관성입니다.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지만 인간 주체가 형식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험적 개념들이죠. 이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인 거예요. 네.

인과관계의 메커니즘, 필연적인 연결고리와 작용하는 힘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개념화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인지 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칸트에게 있어 그 결과는 현상과 본질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구성한 세상이라면,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게 보이는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 그의 독일어 용어로 'Ding für mich' , 즉 '나에게 중요한 것' 이다. 반면에 사물의 본질, 즉 실체는 'Ding an' 이다. sich , 즉 사물 그 자체 . 그리고 우리의 주관성이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그 틀, 그 렌즈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현상만 알 뿐, 본질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해 부정적인 거예요.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전제 조건들을 부정하는 거죠.

주관적인 전제 조건이죠. 물론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기정사실의 조화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고를 구조화하는 구조들이 세계를 구조화하는 구조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현실을 독점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칸트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선형적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되, 그 개념들이 실제로 현실을 구조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이상학적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자연 신학 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문제는 칸트는 이러한 선형적 구조들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겼지만,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구조들이 문화 상대화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

막스 베버가 그랬죠.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형적 구조가 문화적 요인에 상대적이 되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상대화되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형적 구조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역사와 인간 경험의 과정에서 시험되고 검증되어 실용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물이 그들이 보는 방식대로 존재한다는 정당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의 혁명 과 토마스 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과학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패러다임 전환은 선형적 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칸트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서론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칸트 철학에 미친 역사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영향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